

떠오르는 동남아 통신 시장

김희정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영학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 통신 시장의 최대 관심은 동남아 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은 통신 서비스 및 제품 수요가 가장 높은 시장이며

1998년에 가서는 세계 통신 시장의 중심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100 명당 전화 보급률의 세계 평

균이 12 명인 것에 반해 동남아는 불과 5 명에

그치고 있어 동남아의 통신 시장은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가능한 지

역이다. 따라서 통신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21세기 최대 통신 수

요 지역이 될 동남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

치고 있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공통점은 놀라운 속도와 추진력으로 국가의 통신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확장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반 시설도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미래의 PCS(개인 휴대 통신), 위성 통신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야심찬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통신 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는 것이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최우선 전략이 되고 있다. 또한 시장 개방을 통해 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통신 기술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향후 통신 사업에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휴대 전화 시장이다. 동남아 지역의 1995년도 휴대 전화 사용자는 2,1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1998년까지 7,0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본적인 전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휴대 전화가 통신의 가장 이상적인 대체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 전화는 유선 전화에 비해 저렴한 설치 비용과 간단한 설치 작업, 그리고 연결 시간을 대폭 줄이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아날로그 통신망에서 디지털 통신망으로의 교체는 더 높은 성능 및 효율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동남아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생각하고 진출한다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각 나라에 따라 통신 사업 및 기반 시설의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경우는 이미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기본 통신 서비스 제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별로 통신 시장을 세밀히 관찰하고 동향을 파악

하여 각 나라에 맞는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는 동남아 주요국의 통신 시장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국

올해 발표한 5개년계획(1996~2000)에 통신 사업 분야가 최우선 순위로 등장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전화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602.4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70%는 기반 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실행된다면 2000년까지 전화 사용자가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통신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외국 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휴대 전화 시장 개방이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현재 휴대 전화 서비스 사용자는 불과 0.36%이다. 시장이 개방되면 21세기까지 휴대 전화 사용자가 350만 명에서 2,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특히, 관동같은 특수 지정 경제 지역에서는 보다 높은 수요가 기대된다.

홍콩

1997년에 중국으로 귀속될 홍콩의 미래는 여러 면에서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다. 홍콩의 통신 시장은 Hong Kong Telecom社가 독점하고 있지만 작년에 신규 업체들이 등장함으로써 국내 전화 시장에서 누렸던 독점적 시대는 끝났다. 신규 업체들은 국제 전화에 callback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전화 요금을 대폭 낮추면서 HK Telecom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들어갔다. 특히, 휴대 전화 시장은 정부의 사업 허가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율화되었고, 개방된 환경 속에서의 경쟁 관계는 사용료를 계속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통신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통신 업체들은 홍콩보다는 중국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휴대 전화 및 PCS 시장 진입 허가증 발급을 조절·통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방되던 홍콩 시장의 개방 속도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대만

대만 정부는 그동안 통신 시장에서 누렸던 국유의 독점권을 정리하고 해외 업체 및 개인 업체의 시장 진출을 허락하는 입법을 설립하여, 금년 7월부터 시장 개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1998년에 WTO에 가입하기 위해 대만이 갖추어야 되는 전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통신 업체의 유입을 통해 자국 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억제하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대만 정부의 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외국 업체가 국유 통신 업체와 맞서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대만의 통신 시장은 수요에 비해 기반 시설이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휴대 전화와 무선 호출기 시장으로 예측된다. 1995년 시장 규모는 약 53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시장 규모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한국

한국 역시 시장 개방 전략으로 독점 형태였던 통신 산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이 아직은 시장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이 시장 개방과 함께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PCS 서비스는 1998년에 시작될 것이며, 업체들은 PCS 허가증을 받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1998년에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33%까지 허용할 계획이다(예외로 한국통신 22%, 데이콤, 신세기통신은 15%).

통신 분야의 자율화는 기존 통신 업체에게는 타격을 주겠지만, 장비 제조 업체들에게는 수익을 높이고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의 통신 장비 업체는 삼성, LG, 대우, 그리고 현대를 꼽을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들 업체가 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편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통신 산업을 신규 산업으로 지정하고 장비 생산 업체들이 통신 업체의 株主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시장은 해외 업체가 진출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높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직까지 독점 형태로 남은 유일한 시장이다. Sing Tel社는 아직도 정부가 89%를 소유한 국유 기업으로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독점력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Sing

Tel社は 100% 디지털 통신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통신 업체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1997년에 가서야 Mobile One이라는 합작 회사가 휴대 전화와 호출기 시장에서 Sing Tel社の 독점에 처음으로 도전을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시장 개방 추세와는 달리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히려 이미 발급한 통신업 허가를 줄일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전화국이 6 개사, 이동 통신사가 7 개사, 그리고 공중 전화 업체가 3 개사로 되어 있는 국내 통신 시장의 업체수가 너무 많다는 판단 하에, Telecom Malaysia, TRI(Technology Resources Industries), Binnariang社 등 3 개사로 줄일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통신 시장 개방과 민영화 추진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국

지난 10 년 동안 태국 통신 시장은 놀라운 발전을 했다. 과거 전화선을 가설하려면 평균 8 년이 걸렸던 후진성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수요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본 전화선이 설치되고 있다. 방콕 시민의 10%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통신 사업은 이제 태국의 경제를 주도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의 통신 시장은 속도 면에서는 괄목한 성장을 보였으나 정부의 명확한 장기 정책이나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가 뒤늦게 통신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하지만, 외국 업체들이 태국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개방 및 뚜렷한 정부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

(Source: "Asia Pacific Telecommunication," *Financial Times*, April 9, 1996.)